



Hana Market Weekly

#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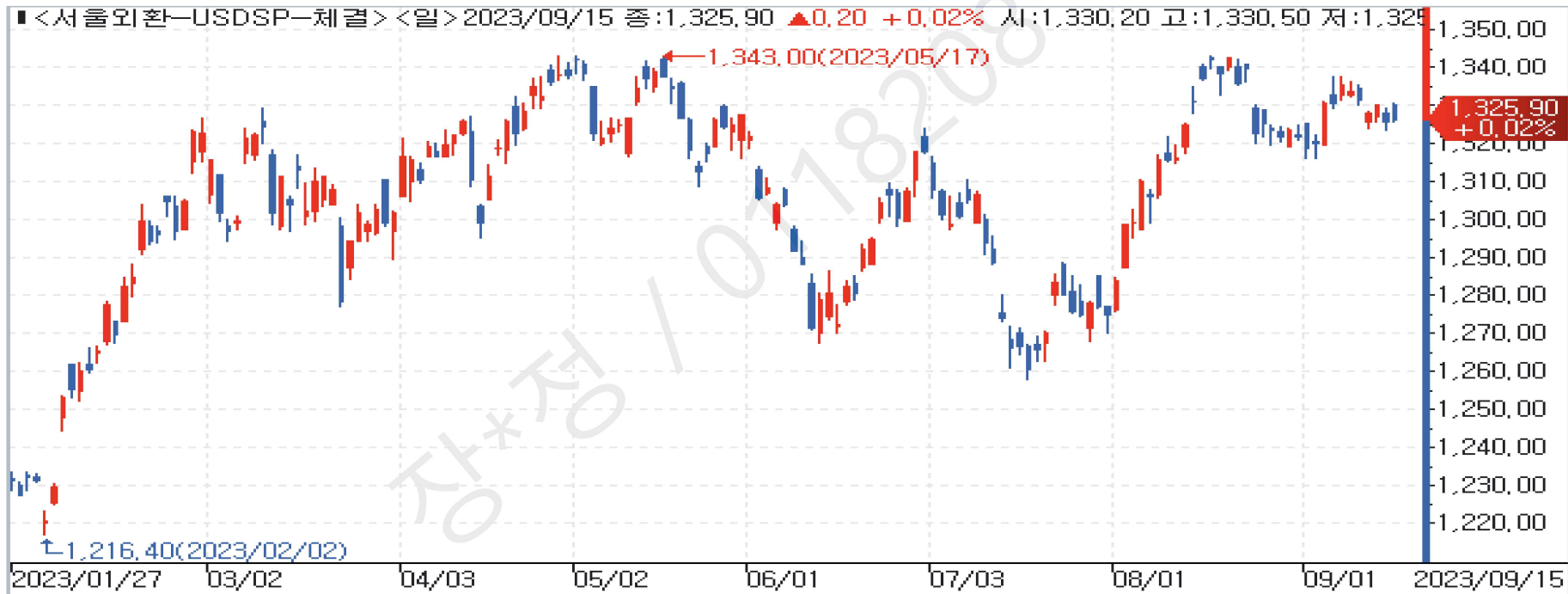
자금시장영업부

2023. 9. 18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주간 달러/원 동향(9/11~9/15) 및 전망



##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우에다 BOJ 총재의 마이너스 금리 종료 가능성 언급과 중국 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 등에 따른 엔화 및 위안화 강세 영향 속 환율 하락 출발. 이어 BOJ 정책 변화 기대감으로 달러 강세 제한되며 하락 흐름 이어갔으나 수급상 결제 수요 유입 등으로 하단 지지되며 소폭 하락
- 중반, 미 8월 CPI 발표 전 경계감과 국제 유가 상승세 영향 등으로 물가상승 우려 확대되며 상승 전환
- 후반 들어, 미 8월 CPI 반등에도 예상 수준에 부합하며 연준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력 제한적일 것으로 인식되면서 하락 전환. 이어 주 후반, ECB의 추가 긴축 중단 전망 강화된 데 따른 달러 강세 흐름 속 중국 인민은행 기준을 인하 및 8월 경제지표 개선 등에 따른 위안화 강세 영향으로 1,320원대 중반에서 마감

## 달러/원 전망

- 미국 9월 FOMC에서의 동결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가 상승세 지속과 자동차 노조 파업 등에 따른 물가 파급 영향 등에 대한 경계감이 환율 상단을 높이는 주요인으로 판단
- 여기에 중국 경제지표의 일부 개선에도 부동산 부문을 둘러싼 우려로 중국 경제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함에 따른 위안화 약세 전환 전망 등도 원화가치 약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다만, 1,330원대 상향에서의 외환당국의 경계감 강화 및 수출 달러 매도 강화 등이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34.3	1,335.2	1,323.2	1,325.9	-8.4

## 예상거래범위

1,320원 ~ 1,340원



# 엔·유로화 동향 (9/11~9/15)



## 유로화 동향

- 주초, 일본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으로 달러 강세 제한된 가운데 독일 9월 ZEW 경기기대지수 전월 대비 개선되며 유로화 강세 흐름으로 출발. 이어 독일 등 유로존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되며 유로존 경제 둔화 우려감 확대됨에 따라 강세 제한
- 중반, ECB 9월 통화정책 회의 앞두고 ECB의 물가 전망치 상향 조정 가능성 등에 경계감 강화되었으나 견조한 미 물가지표로 인플레이션 압력 여전히 모습 확인되면서 달러 대비 약세 전환
- 후반 들어, ECB의 25bp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도 라가르드 총재 발언이 비둘기적으로 평가되며 금리인상 종료 전망 강화 속 약세 흐름 가중. 이어 주 후반, 유로화가 단기 급락한 데 따른 되돌림과 유로존 무역수지 2개월 연속 흑자 기록 소식 등에 달러 대비 소폭 강세 전환하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699	1.0769	1.0632	1.0661	-0.0038

## 엔화 동향

- 주초,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의 "임금 상승 수반하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 시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도 하나의 옵션" 발언에 큰 폭의 강세 시현하며 출발. 이어 BOJ 총재 발언이 엔화 약세 방어를 위한 구두개입성 발언으로 평가되며 재차 약세 전환
- 중반 들어, 미 8월 CPI 반등에 따른 연준 긴축 기조 장기화 경계감 확산 등으로 엔화 약세 지속
- 후반 들어, 여전히 견조한 미 경제지표와 국제 유가 상승세가 미국채 수익률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미일금리차 확대 등에 달러 대비 약세. 이어 주 후반, 미 9월 FOMC 앞두고 인플레이션 경계감 지속되며 미국채 수익률 상승세 이어진 영향으로 약세 흐름 속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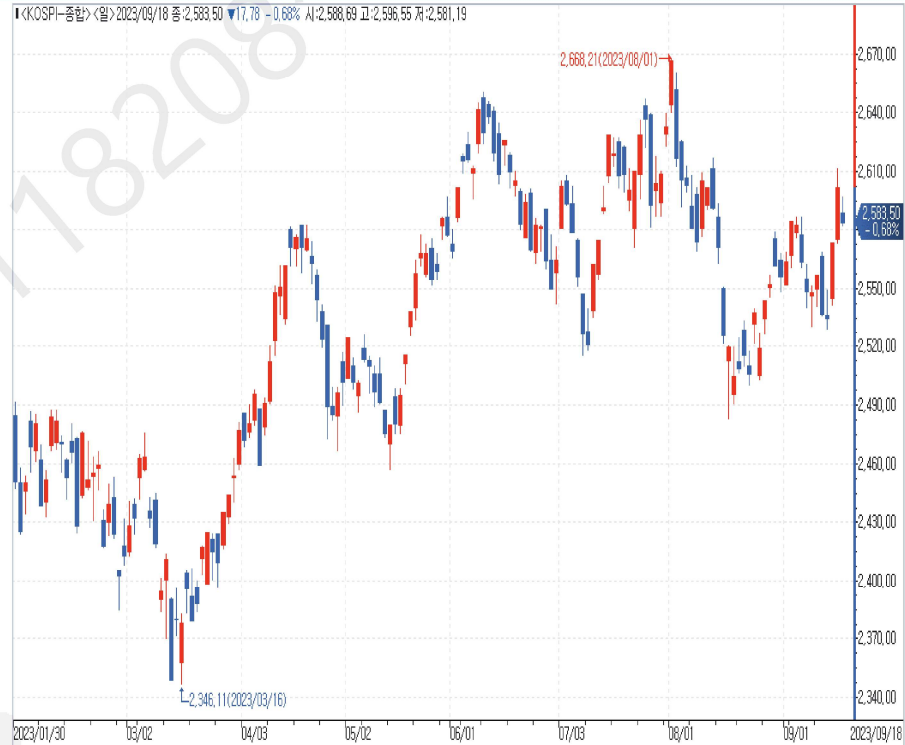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7.8	147.9	145.9	147.8	0.0

#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9/11~9/15)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BOJ의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 반영 속에 수급상 외국인 3년 국채선물 매도 강화 등으로 급등 출발. 이어 BOJ 우에다 총재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 언급 등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 미국 CPI에 대한 관망 등으로 보험권 흐름
- 중반 들어, 미국 8월 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리 강화 등으로 약보합 사면
- 후반 들어, 8월 미국 CPI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 이어 주 후반, 기관의 포지션 축소 움직임 속에 장중 미국채 금리 상승 흐름 등을 반영하며 국고채 금리도 소폭 상승 흐름으로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국제 유가 상승 흐름에 따른 긴축 우려에도 미 CPI와 중국 실물 지표 대기 흐름 속에 소폭 상승 출발. 이어, 중국 부채리스크 우려 속에 미국 물가에 대한 경계감이 짙어지며 내림세로 전환
- 중반 들어, 미국 경제지표에 대한 관망세 속에 2차 전지 업종 약세 등으로 하락 추세 이어진 양상
- 후반 들어, 미 8월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 상승했지만, 유가를 제외한 근원CPI는 4.3% 상승에 머문 측면이 지표에 대한 안도감에 영향을 미치며 상승 전환. 이어 주 후반,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율을 낮춘데 이어 경기 지표도 개선된 측면이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며 상승 마감